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을 외치며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2009년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로마서 6:22)

2009년 제3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누가복음 23:34)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히려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의 높은 자리보다는 기도하는 낮은 자리를 취하셨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 밑에서 살았던 우리에게 무지함이 있다(롬 1:33~34). 나를 구속하려고 주님께서 나의 화복 제물이 되신 것을 몰랐었다(골 1:13~14). 결국 우리는 수없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무지한 자들이었다(고후 11:4; 고전 2:7~8). 우리는 무지하다.

무지함이 핑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알지 못하고 행한 죄도 분명히 죄다(갈 1:6~7). 자신의 가정과 사업에만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는 그의 무지함을 핑계할 수가 없다(잠 5:1~2).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죄의 길을 선택하게 한다. 기경하지 않고 심는 것 없이 내버려 두는 밭에 잡초가 나고 가시 엉클이 생기듯이 인간도 내어 버려두면 잘못된 길을 따라간다(롬 7:21~23).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뼈들이 부

서질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시 22:14). 예수님은 믿음하거나 우는 대신 무지한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셨다(롬 5:8). 주님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다(히 5:6~7). 이 기도 속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 있다(렘 31:34).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시 32:8).

용서함을 받았으니 기뻐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하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롬 6:22~23).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요일 3:2). 영원한 생명은 분명히 있다(요 3:36).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 받은 우리에게 더이상 우리가 지불할 것은 없다. 죄 용서함, 영원한 생명,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롬 7:13).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자.

예수님을 몰라 죄를 범하게 되는 무지함을 내어 쫓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자(갈 5:16~17; 롭 8:1).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뜻을 깨달자(롬 8:38~39).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감사를 드리자(벧전 2:9). 무지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드리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11월

교회일정

1일 (주일) 2009년 제7차 성찬식(1~5부예배)

2010년 전도·선교 설명회(찬양대예배 후)

8일 (주일) 2010년 CMTC(찬양대예배 후)

11일 (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

(수요)부예배 후, 야전도회)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13일 (금) 중헌 찬양의 밤(금요찬양집회)

14일 (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15일 (주일) 추수감사주일

(1~5부예배, 가족초대예배 2·3부)

특별찬양(찬양대예배)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다음 주일은 제7차 성찬식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며, 다음 주일(11월 1일)에는 2009년 제7차 성찬식이 1~5부예배 시에 있습니다. 하나의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마 3:8). 또한 개혁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골 2:15). 보혈로 개혁된 심령으로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온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예배 시, 2009년 제5차 학습 및 세례식
(유아세례는 오후 3시 갈릴릴루)*제42대 장로·22대 안수집사·50대 권사
명단은 본지 7면

AN UNWORTHY MANNER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1Corinthians 11:27)*

The Lord's Supper commemorates the atoning of Jesus Christ on behalf of His people. When Christians take the bread and the cup they are saying loud and clear that they are sinners, condemned in the sight of their Holy God. They are acknowledging that they are guilty of nothing but punishment and death. In essence, they are also saying that although they deserve hell, God in His mercy, love, and grace has dealt with their sins and that they are surely saved. They are testifying that their hope is in Christ alone. They delight in His shed blood by which they have been made acceptable to God. Indeed, the Lord's Supper is only for those who can say these things. Those who cannot confess such truths, yet still partake in the Lord's Supper; do so in an unworthy manner. Let's look at the meaning and worthy manners of the Lord's Supper.

The Lord's Supper is a feast of love. God's greatest gift is His love. It is the best gift anyone can receive. 1Corinthians 13:2-3 say, "If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know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if I have all faith, so as to remove mountains, but do not have love, I am nothing. And if I give all my possessions to feed the poor, and if I surrender my body to be burned, but do not have love, it profits me nothing." Churches that operate their meetings and services in the most excellent of manners, but do not feel God's love are nothing. Great sermons, great music, and great fellowship that exclude God's love are worthless. God's love must always be emphasized. 1John 4:8-9 say, "The 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for God is love. By this the love of God was manifested in us, that God has sent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 so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God is love. 1John 5:1 says, "Whoever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 and whoever loves the Father loves the child born of Him." The church cannot substitute other things for God's love. When God's love is lost, the church becomes proud and selfish. It begins to manifest its own methods and feasts. It stops loving the lowly and poor and starts emphasizing the high and rich. Jesus sacrificed for the lost and poor. He died for sinners.

The Lord's Supper gives you a sense of sin. If you don't feel your sin, then your manners are unworthy for the Lord's Supper. If you raise your pride God voids you because it is not Jesus' blood and body that you think are great, but rather your own. Jesus sacrificed His body, so that His blood could remove the penalty of sin. God only accepts the blood of Jesus for the

forgiveness of sin. Sin is a very, very serious matter. Do you think your sin is really a serious matter? Paul noticed that the Corinthian church lost Jesus' love, "for in your eating each one takes his own supper first; and one is hungry and another is drunk. What! Do you not have houses in which to eat and drink? Or do you despise the church of God and shame those who have nothing? What shall I say to you? Shall I praise you? In this I will not praise you"(1Cor. 11:21-22). As saved ones, let us come together today with Christ's love in our hearts. Let us in a worthy manner wait for one another, "But if we judged ourselves rightly, we would not be judged. But when we are judged, we are disciplined by the Lord so that we will not be condemned along with the world. So then, my brethren, when you come together to eat, wait for one another"(1Cor. 11:31-33).

The Lord's Supper is a time of judgment on the church's sin. 1Corinthians 11:29-30 say,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 God takes corrective action. Paul told the Corinthian church that God had sent physical affliction and even death for sinning in this manner in the church. To neglect the privilege of partaking in the Lord's Supper in a worthy manner brings judgment. It is our responsibility to do the will of God, not our own will. Hebrews 12:11 reminds us, "All discipline for the moment seems not to be joyful, but sorrowful; yet to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afterwards it yields the peaceful fruit of righteousness." The church should understand the will of God, so as not to follow their will. God "works all things after the counsel of His will"(Eph. 1:11). Romans 8:28 says, "And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Jesus said, "We must wor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as long as it is day;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Jn. 9:4). Knowing and doing God's will is important.

My dear friends, please come today to the Lord's Supper in a worthy manner,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this feast of love, sensing your sin, and knowing that an unworthy manner brings judgment. Let the grace of God, which changed your nature and gave you faith, soften your heart and fill you with heavenly joy. Do not come today because of church ritual. Do not come today pretending to be humble. Do not come today by your own authority. Do not come in an unworthy manner! 

다음 주일 설교

잘못된 만찬의 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7)



김성관 목사

주의 만찬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랑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떡과 잔을 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으로 선고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들은 죄의 대가를 형벌과 죽음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비록 자신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사랑, 은총의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고 그로 인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오직 이러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함당치 않게 주의 떡과 잔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주의 만찬을 대하는 함당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축제다

주의 만찬은 사랑의 축제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3:2~3은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집회와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위대한 설교, 은혜로운 찬양, 풍성한 성도 간의 교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8~9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을 보내실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5:1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자신만의 방법과 행사들을 중요시하기 시작합니다. 비천하고 고난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분이 높고 부유한 자들을 치켜세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주의 만찬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주의 만찬을 대하기에 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만이 죄의 형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위한 대가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인정하십니다. 죄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교회라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고전 11:21~22).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모인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함당한 태도로 서로 상대방을 위해 기다려 줍시다.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이라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전 11:31~33).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만찬은 교회의 죄에 대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29~30은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행해진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심지에 죽음을까지 허락하셨다고 고린도교회를 향해 말씀했습니다. 함당한 태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무시할 때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히브리서 12:11은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뜻을 좇지 않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렐 1:11). 로마서 8:28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함당한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자신의 죄를 살펴며, 함당치 못한 태도로 성찬식을 대할 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을 은유하게 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단순히 교회의 예식으로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적회자 마십시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함당치 못한 태도로 성찬식을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수요1부예배 메시지
(2009. 10. 21)

하나님의 질문 (말라기 1:6-8)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았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였을 뿐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였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웃에 있는 강구들을 도우려 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빼앗겼으며,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비참하게 살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였으므로 이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말 1:1)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항변했다(말 1:2).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질문하셨다.

●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리라도 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셨다(말 1:6).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다.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고통을 당하기에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을 더 의지하며 좋아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다(골 1:16-17), 이미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골 1:18-20).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그 사랑을 멸시하며 조롱하였다(요 1:11). 그리고 이방인이 진짜라고 믿기도 한다(행 17:28). 하나님 아버지께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요 1:12).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비롯한 복음과 관계없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곧 믿는 자라는 말이다. 모든 거짓과 외식(요 8:44)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자(요 5:23).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막 7:6)로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자. 하나님 아

버지는 우리에게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말 3:10). 주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데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째서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셨다(말 1:6).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면서도 정작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 이 말은 종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사이다"(요 20:28). 지금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일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시 73:25-26).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롬 1:1). 종으로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한다(마 6:24).

● 너희가 논면 희생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논면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셨다(말 1:8).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과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레 1:3, 9, 22:22)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적당히 하였던 것이다. 가장 은혜로워야 할 제사의 현장에는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느냐? 자신과 관련된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비롯한 온 힘을 쏟으면서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골 1:5)하는가? 매번 예배시간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헌금에도 얼마나 공색한가? 회개하자. 예수님은 우리 죄의 속량을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요 1:29).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골 1:19)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신령한 예배를 드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복음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사랑하. 주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 매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자.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아멘.

가셨다(요 18:4, 21, 19:11).

자신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왔지만 오히려 종교지도자들은 죽이려 하는 데 혈안이였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회적 가치와 분위기에 따라 이스라엘을 열려하였다. 이러한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 빛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두움뿐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으며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요 19:15)라고 말하며 조종에 따라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로마정권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결정하였다(요 19:16).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이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소망을 포기했다. 잠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위해서 말이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종교지도자와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의 승리처럼 보였다. 또한 로마정권에 항거하던 골칫거리들을 제거한 로마의 승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히 밝혔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절대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또한 예수님의 장례 과정도 왕의 죽음을 연상하게 만든다(요 19:38-40).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고난과 죽음에 예수님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점이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은 새 입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요 20:22).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마치 세상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는 승리자는 분명 예수님이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아멘.

* 매주 필요새끼기(새벽 4:40)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족을 6

예수의 고난이 주는 신학적인 위치 (요한복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홀로 고난 당하셨음을 강조하였다. 누가는 고난의 현장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늘의 손길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떠한가?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지만 그때마다 자신이 생명의 주권자임을 밝혔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일을 내게서 행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 10:17-18).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받던 권신과 존경을 예수님께 빼앗기자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였다. 나사로의 부활로 사람들이 무척 놀랐을 때에도 그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요 11:47-48, 53).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깨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격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요 12:27). 고난을 피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강조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요 18:11).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요 13:27).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나아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죄 짓는 것뿐인 저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찬송가 320장(나의 죄를 정케 하사)의 고백이 단순히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팀은 선교를 갈 수 없었던 팀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선교를 준비중이었으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선교지에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저희는 교만하고 게으른 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애용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셨던 글꼴과 인애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며 주의 이름을 전하였을 때 많은 영혼이 "아멘"으로 화답했고,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선교지의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생령 되며, 나의 소망 되며, 나의 구원 되는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은 나의 힘이며, 나의 능력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르다가 이 세상 떠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 예수, 온 세상 만민에 떨칠, 모든 사람에게 전할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귀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지의 영혼들이 돌아오며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 양 되셔서 저와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찬양이 세세에 무궁하길 소망합니다.

강문구(대학부)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올해에는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보여 주시며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영혼들을 볼 때 회개하 주시길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곳에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이삼십 명 모이는 것은 보통이었다. 그들의 입술이 찬양으로 열리고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확신케 해 주셨다.

적막같이 감도는 어느 집에 노부부가 누워 계셨는데 큰 소리로 인사를 해도 기척이 없었다. 손을 잡고며 인사를 하니 그제서야 눈을 뜨시고 할아버지만 겨우 일어나 앉으셨다. 간절함 마음으로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다.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이 많이 비뚤었다. 주님께 간절히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영접기도를 따라하시고 "아멘" 하신 후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은 분명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했다. 부족한 죄인을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혼들을 향한 힘 있는 기도를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최하자(권사, 20교구)

고난을 받으시

처음 선교를 가게 되어 기대감이 있는 반면 두려움도 가득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가 함께 가게 되어 더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가 선교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지?' '내가 도맡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 밤 늦게 수도 근처에서 도착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두 시간 사십 분 동안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오후 사역을 나갔습니다. 전도지를 10장씩 가지고 나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전도는 처음이라 너무 낯설고, 사람을 만나면 의모로 판단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저래서 못 하겠다'고 핑계대며 피해 다니거나 도망을 쳤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고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오후 사역을 마친 후 숙소에 돌아와 저녁 경전화를 하면서 진심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후 사역 때 한 영혼과 한 번도 영접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해서 양심이 찔렸습니다. 또 회개는커녕 팀끼리 모여 수다만 떨고 시끄럽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폐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전도지를 다 읽어 주고 나서 이름을 물어보자 손짓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서 우린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할머니께서 교회에 다니시겠다고 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 두 분께 친구와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없다고 하셨지만,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쁩니다. '선교사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전도를 하자 다른 아이들도 불러왔습니다. 담을 넘어 뛰어 오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아이에게 전도를 하니 기뻐했습니다. 슬펐던 일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가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 들었다고 하자 더 욕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건데 거부할 하니 정말 슬펐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선교구호가 생각나며 기쁩니다. 다음에 또 선교를 오고 싶고,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최현나(종동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27일(화) ~ 11월 4일(수)	14교구 3팀	백준원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12일(화) ~ 10월 21일(수)	16교구 4팀	이경현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금요일 오후가 되면 마음이 설레어 자주 시계를 보게 된다. 업무를 부지런히 마치고 '금요찬양집의 15분 전에는 도착해야지' 다짐한다. 늦으면 늦은 시간만큼 은혜를 받지 못하니 얼마나 큰 손해인가? 집회에 몇 분 늦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지각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찬송을 부르며 통성기도로 이어지는 은혜 속에 더 없는 충만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소중한 시간, 성령임으로 은혜 받고 계속 이어지는 선교 간증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다. 위임목사님의 지도 하에 함께 찬양을 부를 때는 가슴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매료되어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한없이 감사하다.

어느덧 예수님을 열접한 지 2년, 조금씩 변화된 자신을 발견한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으로 겹겹이 싸여 있어 모나고 거친 성격이 세상에 부딪쳐 찢겼다. 상처 받아 아픈 마음을 세상 어느 땅에도 치우쳐 주지 못했던단, 철저히 회개하고 연단시켜 주시며 죄의 베일을 벗겨 주시고 말씀으로 씻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금요찬양집에 때마다 천국잔치 같은 아름다움이 계속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다.

김기정(성도, 4교구)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이 찬송은 지난 겨울 서른두 번의 방산신 치료를 받으며 마음속으로 부르던 찬송이다. '왜 내가? 정말일까?' 그때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한참을 멍한 채 보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누구 때문이야?' 회피하는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다.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그때 유일하게 귀에 들려오는 말이 있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하는 말 "기도할까요." 너무도 고마웠다. 힘이 되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 결혼 후 시댁 식구들을 통해 신앙을 가졌다. 그러나 친정 예선 청장반단 행동시 시작에서는 책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부정적인 신앙을 가져 마음속으로 비판하는 습관이 들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다. 어리석어 알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 알게 해 주셨다. 평소 울지 않던 내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부르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막막하고 캄캄한 터널 속 같은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이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윤영실(집사, 7교구)

33세의 한 청년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 속에서 월요일마다 강론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아담의 죄로 인해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 값을 치루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 감사하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십자가상에서 33세의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메시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심에 의지하여야 하며,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 사건에 대해 믿진 믿지 않진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종교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말이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분명히 역사의 종교이기 때문에 아니 믿는 자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이 되어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택하신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역사는 종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며, 종교적 의미에서 쓰여졌다. 성경 해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한 후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므로 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랄지라도 기꺼이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길 기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먼 훗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서 늘 찬송 부르며 영원한 삶, 즐거운 삶을 누리며 서로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한현석(인수집사, 2교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심과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축복'이라는 포장 아래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듯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은 복음을 가장한 복음일 뿐이지 결코 참된 복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참된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깊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며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은 위임목사님을 통해 '메시아의 죽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것들과 융합되어 있는 거짓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월요일새기도회를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것이라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이 시간은 나에게 참 회개와 회개할 시간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눈물로 회개해야 할 죄인이었으며,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속받아야 할 죄인이었다. 주님은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

위임목사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메시아의 죽음은 신화가 아닌 역사 속에 분명히 실재했던 사건이며, 그것은 모든 인류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5)라고 선포했다.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며 지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매순간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 죄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문준(목사, 10교구)



임직자 명단

제42대 장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문효식	15	87-653	노은영	23	92-62	구원섭	1	86-125
최경하	17	90-759	김영주	5	82-208	윤해균	18	87-27
최민석	15	95-18	이창희	10	86-24	김명성	12	92-47
백봉선	4	89-750						(좌에서 우로 연령순)

제22대 안수집사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연구	6	89-421	한종남	7	89-1330	김향태	10	95-321
최동식	5	95-237	백남제	7	79-352	김석제	14	90-383
정효식	9	89-420	윤순규	3	83-669	박진일	15	94-2006
권백용	22	85-969	박병선	23	87-437	김희동	4	85-639
정봉성	4	99-1102	홍금성	5	92-664	박성철	16	93-1321
최규태	2	95-124	문우식	21	90-117	최규옥	12	561
임병익	14	99-1050	김광선	8	2001-0380			(좌에서 우로 연령순)

제50대 권사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강길재	15	89-109	강복희	13	93-1188	강태연	4	92-1150
권경애	14	91-487	김경희	17	91-254	김순자	23	93-409
김송희	1	91-381	김신순	13	92-377	김영옥	18	516
김옥선	5	95-237	김경숙	19	92-154	김정숙	24	81-389
김정임	6	97-619	김경희	20	83-707	김지선	7	88-774
김하경	15	89-928	김학희	19	84-620	남명숙	24	91-300
도수자	9	91-1005	문성애	4	92-820	박경애	19	85-776
박혜옥	12	88-795	방영미	3	93-945	서인순	14	84-72
신정숙	10	94-1962	신혜옥	15	93-1109	오명자	15	86-578
오영자	8	89-1160	오경례	1	2004-0509	유옥현	17	82-134
윤숙희	6	83-311	이계옥	12	84-988	이명희	2	95-232
이미랑	7	96-57	이설희	2	80-118	이성옥	20	91-278
이수인	14	88-252	이순자	24	95-1489	이영순	15	86-187
이정연	22	95-246	장금자	2	92-656	장신자	16	82-580
장새복	12	4422	정영숙	16	82-39	정희숙	11	84-1102
조성옥	11	4156	차봉순	9	84-169	채은실	24	86-566
최종란	5	88-257	한명자	11	3133	함진옥	21	4634
허미자	24	95-236	허준화	6	94-69	황민자	21	88-2
황호선	10	92-632						(좌에서 우로 이름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게 하소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골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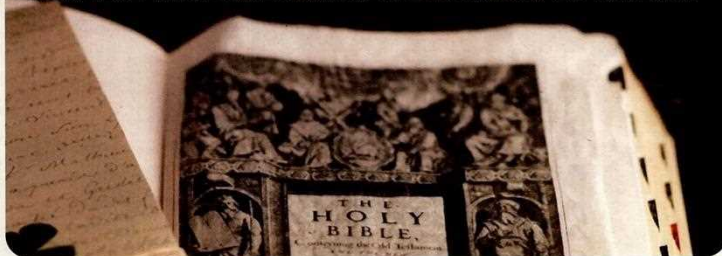
십자가의 길

종교개혁과 성경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사이자 신학교수인 루터가 ‘면죄부(免罪符)에 관한 95개조 논제’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대학의 성(聖)교회 청문회에 게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항의문은 마르틴의 대주교(大主教) 교회의 알브레히트가 세장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팔았던 면죄부의 잘못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것이 루터 자신의 예상을 넘어 유럽 전역에 파급되는 개혁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의 예배의식이 크게 바뀌었다. 성직자 중심의 예배로부터 예배자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로, ‘의전(儀典) 중심’의 예배로부터 ‘말씀 중심’의 예배로 변했다. 중세 가톨릭교회의 예배는 성직자 중심의 예배였다.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됐고, 성직자 외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진행된 예배에서 외종은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서 성경은 성직자만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 성만찬에서 일반 신도들은 떡만 받고 포도주만은 받을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는 포도주를 일수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지만 여기에는 사제들의 특권의식이 깔려 있었다.

루터는 이러한 모든 관행을 폐지했다. 예배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진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예배자들은 오랫동안 막혔던 귀가 열렸다. 성만찬에서 모든 예배자는 떡과 잔을 받게 됐다. 모든 예배자가 한 목소리로 찬양했다. 모두 참여자가 되어 예배는 활기가 넘쳤고, 교회에는 신연한 새 바람이 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아나님 말씀의 선포’를 예배의 중심에 놓았다. 따라서 당시까지 틀에 싸인 강령화된 ‘의전 중심’의 예배로부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다.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18	백준식	18	장년3부	박효치(13)
1419	강유빈	11	청년1부	최하자(20)
1420	김석현	4	장년3부	
1421	신동혁	3	청년1부	김연식(6)
1422	오종훈	23	청년2부	정태동(4)
1423	변기연	23	장년1부	변인식(6)
1424	예니	25	외신부	양순옥(11)
1425	제리	25	외신부	서단비(15)
1426	샤니	25	외신부	서단비(15)
1427	김형석	19	청년2부	박순옥(19)
1428	이승이	12	고등부	백재홍(12)
1429	노윤종	21	청년1부	이성옥(20)
1430	한윤구	11	청년2부	장 작(1)
1431	구연순	20	소양부	김수자(20)
1432	장신재	11	청년2부	장 작(1)
1433	한연지	11	초등2부	장 작(1)
1434	한윤주	11	초등1부	장 작(1)
1435	백지원	13	청년2부	김신순(13)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일 시: 10월 28일(수) 12:00~16:00
장 소: 제2교육관 1층 코이노니아홀, 중흥복지관 옆 주차장
품 목: 의류, 생활용품 및 잡화, 농수산물,
비즈엑세서리(장매인 제작) 외 간단한 먹거리